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멩에를 메고 배우라

성경: 마태복음 11장 25-30절

Tag: 행복, 만족 >Happiness & Satisfaction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5-30)

오늘 읽은 말씀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이고, 고라신은 가버나움 위쪽에 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바다에서 서남쪽으로 제법 떨어진 곳이었고 처음 기적을 일으킨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다.

특히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으로, 갈릴리바다와 연결해 있으며, 예수님은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의미, 권능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더구나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 이럴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엉뚱하고 미미한 반응에 대한 한탄이셨다.

이정도 권능이면 두로와 시돈은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셨다.

특히 가버나움의 교만은 하늘을 찢었다. 만약 똑같은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보존했을 것이라 하셨다.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건디기 쉬울 것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물론 이미 심판은 예정된 것이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러 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의 구원은 나누어 주다가 없어서 끊기고야 마는 밥차가 아니다. 온 인류가 구원 받고도 남을 만큼의 구원이 공로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나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이 저절로 어느 특정 부류에 속한 자들에게는 숨겨졌다는 것을 지적 하셨다.

누구에게 숨겨졌을까?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속에 있는 지혜가 너무 커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가 잘 보

이지 않는 자들.

현재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있는 지혜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진리가 마음에 확 와 닿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이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마귀의 유혹과 맥락이 같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군중들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자신의 몸을 숨기셨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촌구석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마음에 걸렸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면 모르겠지만, 나사렛이라...

또 예수님은 전혀 배우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러나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은 예수님의 학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진리의 세계는 너무 숭고해서 감히 시골출신 듣보잡 재간꾼에게 자신들의 크고 높은 지혜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만 있었더라도, 진리에 대한 열정만 있었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만 있었더라도 쉽게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셨다.

-그런 말들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몹시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잘 계시되는데 대해서

매우 긍정하셨다. 이것은 진리를 깨닫는데 나이제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순전한 영혼, 겸손한 영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영혼,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영혼이 복된 영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학식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걸림이 되는가? 학식이나, 재물이나 경험이 진리를 깨우치는데 방해가 되는가?

-겸손하느냐 거만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식이나 재물이나 경험이 많아서 겸손한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는데 학식이나 경험이나 재물이 도움이 된다. (재물까지 도움이 될까? 재물이 많으면서 겸손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대범하며 일처리가 깔끔하며 결단력이 우수하다.)

-대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겸손할수록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만할수록 가식적으로 회개한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절 말씀은 독보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달은 자가 없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도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알 뿐이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시를 특정 계층에 있는 자들에게만 공개하시려는 분이 아니시다.

-자기의 측근 들에게만, 선심 쓰듯이 알려주시려는 분이 아니시다. 뭔가 주도권을 쥐고 사람들을 쥐락 펴락하려는 심보로 특권을 이용하시려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모두를 초청하신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

-사람마다 무거운 짐이 각각 다르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이 아님.

-이 무거운 짐은 영적인 짐, 마음의 짐을 말한다.

-죄책감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불안감이 원인인 경우

-학습된 짐. 오래도록 습관화 된 죄짐.

-율법의 짐.

46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눅11:46)

-오래전 어떤 목사님 말씀.

-나는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괴롭힐까만 생각한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워주면, 그 짐을 지려고 애를 쓰고, 헌금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한다는 것.

-교인들은 그 짐을 지면 문제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헌금하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소망하며 목사가 지워준 짐을 지느라 끙끙댄다.

-교회생활의 열정이 자신의 인생목적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

-열정으로 치장된 탐욕적 율법주의의 멍에에 불과하다.

(남들보다 기도 많이하고, 헌금 많이하고, 봉사 많이하는 한국교회 율법주의-7~80년대 유행했음.)

-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 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헌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불태우다가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보았다.
- 그 많은 열정에 가득한 성도들이 모두 율법주의자들이었나?
- 오직 겸손과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열정이 가득했다면 그나마 실족하지는 않았으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라.
- 열정도 좋지만, 쉼도 중요하다. 안식을 얻어야 새 힘을 얻는다.
- 참 진리는 영혼에 안식을 준다.
- 참 진리는 영혼에 자유를 준다.
-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 주시는 멍에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다.
-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 온유와 겸손의 짐을 져라.
- 율법주의 열정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5-30)

- 그러면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것이다. 아멘.
-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주소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 오직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 모든 교만과 모든 율법주의,
열정으로 치장된 탐욕적 율법주의를 회개합니다.
-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오직 예수님께서서 지워주시는 짐만 지고, 감당해야 할 멍에를 매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일하는 기독교인 성경: 전도서 11장

Tag:

- 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 4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 5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 7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 10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11:1-10)

-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라.
-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저축하라.
- 무모한 도전을 삼가고, 비용을 최소화하라.

1절; 새번역은 이 말씀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이윤을 남길 것이다”라고 번역했다. 왕대일 교수(감신대)는 이 번역을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환경에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가장 모험적인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 인생의 예측불허 한 체험을 누려보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인생은 예측불허.
-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
-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다.
- 꼭 떡을 물에 던져야 한다는 말은 아님. 그만큼 인생 자체가 예측불허.
-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님.
- 도전하라는 말도, 도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님.

-다만 긍정적인 해석이라면;선행이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다. (심지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적절하게 섭리하지 않으시겠는가. 없잖아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무엇이 유익할지 모르니, 몰빵 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피곤해 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베푸는 삶을 습관화하라. (하나님께 저축하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베푸는 자는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오던 옛 속담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담은 ‘빵을 물에 던져라 곧 선행을 베풀라.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바그다드 왕자가 어느 날 강물에 빠져 실종되었는데 몇 주가 지나서 멀쩡히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위를 들으니 그가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한 바위에 걸려있는데 수시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강물 위로 떠내려 오기에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 가죽 주머니 안에 써 있던 ‘베센하드’라는 사람을 찾아 빵을 강물에 떠내려 보낸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옛 속담이 정말 실현되는지 알고 싶어 빵을 주머니에 넣어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속담처럼 강물에 던진 빵 덕분에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5 바람의 길이 어둠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마음에 대비하라, 크게 실망치 말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
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
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을 당하는
즐거움을 피하라)

10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
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